

합격 통보 받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거나 1월 레귤러 마감 후 4월에 합격 통지를 받더라도 12학년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12학년 성적을 망치면 합격했던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미국 대학들은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2학년 학기말 성적과 학년말 성적표를 제출받는다.

이들 학생 가운데 12학년 성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학생이 있으면 각 대학들은 그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가 소개한 한 학생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A 군은 UCLA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느슨해진 마음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했다.

특히 5월에 보는 학기 말 시험을 엉망으로 보았다. 평소 과목 A, B를 유지하던 A 군은 C, D로 성적표를 도배했다. 누가 보더라도 성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는 8월에 UCLA 기숙사에 입소를 했다. 그때 학교 입학처 직원이 찾아와서 합격이 취소됐노라고 전했다. 12학년 성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당히'라고 생각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

특별활동 이력이 대입 지원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대학입시 원서 작성시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고교 생활 중 했던 특별 활동과 수상 경력 등의 목록을 기입하는 것이다. 대학들이 지원서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단지 학교 성적과 SAT/ACT 점수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가 공부 이외에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경을 넓혔는지, 진정으로 어떤일에 열정이 있으며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관련 분야에 관여했는지를 봄으로써 지원자가 '어떤 사람' 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원서 이외에 지원자의 다양하고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특별 활동 이력 등이다. 지원자가 관여한 특정 활동의 기간과 헌신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의 성품이나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완성도 있고 정확한 특별 활동 이력을 작성하려면, 9학년 때부터 자신의 활동들을 기록하여 파일로 만들기를 권한다. 한 학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 한 학년 동안 했던 활동들과 수상 경력, 자원 봉사 활동들을 기록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활동 기록 작성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특별 과외 활동들(extracurricular activities), 성적 우수상과 그밖의 수상 기록들(honors and awards), 지역 봉사 활동들(community service), 여름방학동안의 활동이나 경험들(summer experiences), 고용 경력과 인턴쉽(employment and internship), 그리고 취미 활동(hobbies and interests).

입학 사정관들에게 점수와 성적 이외에 특별활동 기록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이상적인 지원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천 수만명의 경쟁자들로 부터 단연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러기 위해 다음의 조언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학교 공부 이외의 활동에 관해 가능한 많이 자세히 보여주라. 단 한 번 몇 시간 동안만 했던 활동들은 포함시키지 마라. 진정으로 좋아하고 헌신한 활동들을 강조하라. 대학은 특별히 지원자가 얼마만큼 일관성 있게 깊이 있게 그 활동을 했는지를 눈여겨 본다.

대학들이 '대학 순위'에 목매다는 이유

대학들이 유달리 신경 쓰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 순위(랭킹)이다. 왜 그럴까?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미국 대학 순위/랭킹을 내기 시작했을 때 각 대학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매체의 대학 순위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과거 명성을 누리던 일부 대학들은 랭킹에서 처지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별 볼일 없던 대학들이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기를 쓰고 순위/랭킹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학 순위/랭킹에는 함정이 많다. 자의적 요소가 많은 것이다. 각 대학들은 유에스 뉴스가 매기는 순위가 교육 수준을 알리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이를 참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쓴다.

미국 대학 순위/랭킹을 정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학 합격률이다.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자 수가 늘면 합격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각 대학은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하버드를 비롯해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

에 지원해 달라는 e메일이나 편지를 받아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SAT나 PSAT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편지가 쇄도한다.

일부 학생들은 "하버드에서 나를 오라고 했어!"라며 흥분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에게나 보내는 편지다. 어떤 대학은 일찍 지원을 하면 원서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찍 지원하면 에세이를 면제시켜주겠다고 대학도 있다. 원서를 일단 제출하면 후속 서류를 내지 않아도 그 학생을 지원자수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손해가 아니다.

대학들의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표준화 시험 점수다. SAT, ACT점수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의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 대학들이 쓰는 필수 가운데 SAT, ACT점수 제출을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점수가 높은 학생만 제출하게 되고 낮은 학생은 내지 않는다. 점수가 높은 학생들만 점수를 제출하므로 대학의 전체 SAT점수 분포는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대학들은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학교 랭킹/순위를 올리려고 한다.

명성이 높다고 나에게도 좋은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